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

박옥임 · 이경주
순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with Father Perceived by Adolescents
— 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

Park, Ok Im · Lee, Kyeong Ju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find out what differences are made on among home-environmental variables, family cohesion, adaption and communication, and to define what variables influence to communication satisfaction of adolescent children.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78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Kwangju from July 6, 1992 to July 15, 1992.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test, F-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ge, father's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and father's religion.
- 2) Communic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dolescent's sex, age, father's ag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occupation and father's religion.
- 3) Communication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bout adolescent's age, father's income level.
- 4) Communication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y high level in reference to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 5)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reference to communica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 6)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communication satisfaction between fathers and their adolescents children was active response and marked positive influence in order family adaptability, friendly nonverbalism.

I. 문제의 제기

가족은 여러 세대와 서로 다른 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밀한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역

동적이다. 때문에 가족관계가 우호적일때는 사랑, 배려, 우애, 화목, 관용 등이 지속되나, 갈등적일때는 불안, 증오, 실망, 배신감, 분노 등을 야기시켜 부조화가 교차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간에 조화적인 면이 지속되고 가족 모두가 성장 발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성원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의 발달 단계중에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화 과정과 정체감의 틀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이때 의사소통 방법이나 기술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가족원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가족의 평형상태와 균형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온 한국사회에서는 핵가족화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병리적 이면서 역기능적인 가족이 증가되고, 별거, 이혼 등과 같은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대두되면서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가족자원이 과거 확대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더우기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취업증가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업 수행을 위하여 아버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다.

청소년기 가족을 연구한 문헌에서도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Rollins & Thomas (1979)나 Steinmetz(1979)에 따르면, 청소년기 남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남성모델이 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온정적으로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은 자녀의 성격발달, 지적 능력 발달, 성취동기 등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Herzog and Sudia(1973)에 따르면, 아버지의 참여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남아가 여아보다는 비행이 많았고, 가족성원간의 응집력 결여가 청소년 비행과 강력한 관련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부부의 권력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청소년기가 교육기간의 연장, 취업난의 가중 등으로 장기화 현상을 보이며, 역기능적인 가족을 유발하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 재인식되어야 할 요건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정의 경우 실제 아버지의 참여도는 낮은 편이고 이에 관련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 응집성, 적응성과 의사소통이 포괄적인 가족 환경요인들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또한 이들이 의사소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관계의 상호 이해증진과 의사소통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가족 적응성, 응집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가족 적응성, 응집성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2: 의사소통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그리하여 이 연구는 일반 가정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대한 생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더 나아가 청소년 교육과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가정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조가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말의 어원은 “공통” 혹은 “공유”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communis이며(차배근, 1985), 그 개념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교환을 통하여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고 수신자의 의식이나 태도 혹은 행동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관계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의의는 자녀의 사회화, 정체감 형성, 가족갈등의 해결 등에서 불

수 있는데,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그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도록 수신자와 송신자간에 개방된 channel을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에 관한 연구들(김진숙 1983, 정혜영 1986, 이경주 1990)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녀가 장남, 장녀일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의사소통이 더 잘되며, 도시의 부모가 대화의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이향연, 1986), 충고 해결 제시형이 많으며, 다음이 설교 훈계형, 비판형이며, 지역별로 비교하면, 도시부모는 설교 훈계형, 충고 해결 제시형이 더 많고 농촌부모는 지시 명령형, 비판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장호선 1987, 이정우·김규원 1989)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버지와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형제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전문관리직일때, 자녀가 아버지 또는 형제와 취미, 여가활동을 함께 하거나, 휴일에 주로 부모와 함께 지낼때, 대화시간이 많고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대화욕구가 강할때, 의견충돌이 적을때, 흥미있는 화제가 일치할수록, 대화유형이 쌍방적이고 자유로울때,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때,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아버지와 자녀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연구(오연옥 1987, 정혜영 1986, 이정우·김규원 1989)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2.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가족기능을 잘 설명해 주는 적응성, 응집성을 보면 Olson(1983) 등은 가족의 응집성을 “가족체계내에서 가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 자율성의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응집력 수준에는 두 견해가 있는데 첫째, Galvin과 Brommel(1982)은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은 가족은 속박된 가족으로서 가족원들이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개개인들은 자율성이 없고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경험하지 못한 반면에, 응집력이 낮은 가족은 유리된 가족으로서 가족원들이 친밀감이나 일치감을 거의 갖지 못하고 각자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개성을 가지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그밖에 Lavee(1985), Rodick(1986) 등의 연구에서도 문제가족에서 가족응집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가 나타나며, 응집력이 중간 수준일때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인 발달에도 적절하다고 보았다. 둘째, 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Kennedy(1983)는 응집력이 낮을수록 가족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고, Lowe(1982)의 연구에서도 가족 응집성을 높게 지각할때 아버지와 청소년 관계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Olson & McCubbin(1983)은 가족 적응성을 “가족체계가 상황적이고 발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적응성 개념도 응집성과 마찬가지로 두 견해가 있다. Olson(1983) 등은 적응력이 낮은 가족을 경직된 가족으로서 예측할 수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한 반면, 적응력이 높은 가족은 혼돈된 가족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만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킴으로 양극단인 경직, 혼돈된 가족은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Beavers와 Voller(1983)는 Circumplex model과는 달리 적응성을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김진희 1989, 재인용).

가족체계에 대한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의 중심개념인 응집성 및 적응성은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구분짓는 중추적 개념인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순옥의 연구(1990)

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부의 응집성이 모의 응집성보다 낮았으며 부모간의 응집성은 가족구조 변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즉 부자 응집성은 형제자매 유무에 의하여, 모자응집성은 형제자매 유무와 출생순위에 의하여, 부녀응집성은 출생순위와 모와의 연령차에 의하여, 모녀응집성은 부모유무와 모와의 연령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자응집성은 독자인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더 높고, 모자응집성은 독자인 경우보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와 출생순위가 중간인 경우보다 첫째인 경우에 더 높고, 부녀응집성은 출생순위가 중간인 경우보다 첫째인 경우와 모와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높고, 모녀응집성은 부모 모두 있는 경우보다 부는 없고 모만 있는 경우와 모와의 연령차가 많은 경우보다 적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를 독자의 자기중심적인 특성, 장자중심의 가족특성, 모와의 연령차에 따른 공감 형성차이, 결손가족이 보호적 유대관계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진희(1988)의 연구에서는 가족 적응성, 응집성은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 관리직에 종사할수록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 종교, 가족형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Kennedy(1983)는 양친이 있는 대학생이 편친만 있는 대학생보다 가족 응집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Bentley(1983)는 쌍둥이 청소년(동성의 형제자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가족 응집성 척도는 Olson, Portner와 Bell(1982) 등이 제작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 ; FACES II)를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FACES II는 14개의 하위

변인으로 모두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응집성(Cohesion) 차원은 8개의 하위변인으로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 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선택하여 “매우 그렇다”(5점) - “거의 그렇지 않다”(1점)을 주어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다. 가족 응집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가족 적응성 척도는 Olson(1982) 등의 가족 응집성 및 척도(FACES II)를 근거로 전문가의 의견과 선행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문항은 가족 내의 권력,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과 관련된 14개로 구성하였으며, Likert형 5점척도로 하여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적응성이 높다. 가족 적응성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척도는 의사소통에 관한 김순옥의 연구(1991)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부정적 대화(9문항), 긍정적 대화(9문항), 우호적 비언어(7문항), 적극적 반응(4문항)을 Likert형 3점 척도로 하여 합계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의사소통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78, .87, .79, .87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만족도 척도는 이결남의 연구(1989)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에 대한 느낌, 문제에 대한 상의를 원하는 정도, 편안한 대화를 하는 정도, 견해차이에 대한 대화 정도 및 대화시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하는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한 5개 문항으로써 3점 척도로하여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의사소통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처리

조사대상은 광주 직할시에 소재한 6개 중학교의 남학생 300명, 여학생 350명이었고, 기간은 예비조사의 경우 중학교 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1992년 6월 25일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경우는 1992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650부를 배부하여, 57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

분율을 구하였으며, T-test, F-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s Grouping Test, Pearson 적률상관계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54.3%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15세 이상 46.8%, 출생순위는 첫째, 막내가 각각 36.2%, 형제자매수는 3명인 경우 43.1%, 아버지 연령은 40대가 72%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인 경우 51.6%, 생활수준은 중상이 30.4%, 아버지 직업이 상업, 자영업인 경우 32.4%, 아버지 종교가 없는 경우 43.1%, 자녀의 종교는 기독교로 39.3%, 가족형태가 핵가족 82.5%로 가장 많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78)

변 인	집 단	빈 도	%
자녀성별	남	264	45.7
	여	314	54.3
자녀연령	13세 이하	61	10.6
	14세	246	42.6
	15세 이상	271	46.8
출생순위	첫 째	209	36.2
	중 간	157	27.2
	막 내	209	36.2
형제자매수	0명	14	2.4
	1명	15	2.6
	2명	142	24.6
	3명	249	43.1
	4명이상	142	24.6
아버지 연령	30대 이하	19	3.4
	40대	407	72.0
	50대 이상	116	20.5
아버지 학력	국졸이하	33	5.7
	중 졸	83	14.4
	고 졸	298	51.6
	대 졸	110	19.0
	대학원졸	24	4.2

변 인	집 단	빈 도	%
생활수준	상	128	22.1
	중 상	176	30.4
	중	160	27.7
	중 하	91	15.7
	하	23	4.1
아버지 직업	무 직	12	2.1
	단순노무직	66	11.4
	기술서비스직	75	13.0
	상업·자영업	187	32.4
	사 무 직	146	25.3
	전 문 직	48	8.3
	행정관리직	19	3.3
아버지 종교	무	249	43.1
	불 교	139	24.0
	천주교	55	9.5
	기독교	105	18.2
	기 타	7	1.2
자녀종교	무	175	30.3
	불 교	78	13.5
	천주교	89	15.4
	기독교	227	39.3
	기타	9	1.5
가족형태	확대가족	85	14.7
	핵 가 족	477	82.5
	결손가족	16	2.8

* 무응답은 제외시켰으므로 사레수는 얼마간 차이가 있음.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적응성, 응집성과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만족도

<연구문제 1-1>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2에서 보면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가족 응집성($P < .01$)과 적응성($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남자는 감정적인 표현에 과묵하도록 하여 폐쇄되고, 여자는 감정 표현이 개방되어 있어

서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 느끼고 가족체계의 변화능력도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결과는 김진희(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족 응집성($P < .001$),

적응성($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 개인적 자율성의 정도,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적을

표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독립변인 구분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적응성		
		M	S.D	Duncan's G	M	S.D	Duncan's G
자녀성별	여	59.02	11.10		49.13	10.49	
	남	57.82	9.29		48.19	8.63	
	T	1.41**			1.19***		
자녀연령	13세 이하	60.02	9.33	A	50.80	8.14	A
	14세	59.96	10.30	A	49.83	9.67	A
	15세 이상	56.78	10.51	B	47.21	9.83	B
	F	7.03***			6.44**		
출생순위	첫째	59.96	10.08	A	48.70	9.84	A
	중간	58.16	10.70	A	48.32	9.68	A
	막내	57.45	10.21	A	48.86	9.60	A
	F	2.49***			0.14**		
형제자매수	0명	59.43	9.10	A	52.00	9.10	A
	1명	59.33	10.22	A	49.07	10.44	A
	2명	60.55	9.90	A	49.44	9.78	A
	3명	57.99	10.16	A	48.46	9.47	A
	4명이상	57.12	10.89	A	47.66	9.63	A
F	2.26			1.06			
아버지연령	30대 이하	59.03	9.38	A	47.66	11.04	A
	40대	59.03	10.48	A	48.98	9.95	A
	50대 이상	56.85	9.63	A	48.06	8.66	A
	F	2.33			0.67		
아버지교육수준	국졸 이하	55.15	9.38	B	45.09	9.08	B
	중졸	56.31	9.63	AB	47.24	9.42	AB
	고졸	59.03	10.45	AB	48.49	9.76	AB
	대졸이상	60.38	10.13	A	51.01	9.66	A
	F	2.97*			3.38**		
생활수준	상	59.64	10.49	A	50.97	9.62	A
	중상	60.36	9.45	A	50.06	9.23	A
	중	57.85	10.21	AB	47.72	9.68	AB
	중하	55.27	10.87	B	45.66	9.49	BC
	하	55.11	10.89	B	44.00	9.71	C
F	5.10***			6.83***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독립변인 구분	종속변인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적응성		
		M	S.D	Duncan's G	M	S.D	Duncan's G
아버지 직업	무	56.42	14.14	BC	45.67	12.12	B
	단순노무직	54.73	8.66	C	45.94	7.28	B
	기술직	58.28	10.81	ABC	48.72	11.06	B
	상업·자영업	58.50	9.57	ABC	48.01	8.66	B
	사무직	60.35	10.35	AB	49.95	9.87	AB
	전문직	60.00	11.75	AB	49.95	11.68	AB
	행정관리직	62.68	10.55	A	54.32	11.11	A
	F	2.94**			2.83**		
종교	무	57.40	10.47	A	47.46	9.85	A
	불교	59.43	9.23	A	49.63	8.84	A
	천주교	59.49	10.21	A	49.69	10.33	A
	기독교	59.96	10.98	A	50.06	10.04	A
	F	2.20			2.66*		
자녀의 종교	무	57.09	10.60	A	47.84	4.73	A
	불교	59.08	2.12	A	49.86	3.54	A
	천주교	59.91	15.52	A	50.00	14.80	A
	기독교	58.71	10.28	A	48.37	10.88	A
	F	1.75			1.44		
가족 형태	확대가족	58.78	9.90	A	48.64	9.54	A
	핵가족	58.58	10.30	A	48.80	9.74	A
	결손가족	53.56	12.46	B	46.13	9.19	A
	F	1.88			0.59		

* P<.05, ** P<.01, *** P<.001

수록 가정외부의 관심이나, 자기만의 세계로 몰입되는 경향이 적어 가족 적응성, 응집성이 강하다고 사료된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14세, 15세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14세 이하가 15세 이상된 집단보다 적응성, 응집성이 높았다.

출생순위, 형제자매수, 아버지 연령등에서는 평균의 차이는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김순옥(1990) 연구를 보면, 출생순위가 첫째인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응집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진희(1989) 연구에서는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생순위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응집성(P<.05)과

적응성(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대졸이상이 가장 높고, 고졸, 중졸, 국졸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기능적인 가족으로의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졸과 중졸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 적응성에 대한 교육수준에서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이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이 빈약한 가정의 청소년보다 학교나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가족에게 더 밀착되어 있고 가족체제를 변화시키

는 능력도 크다는 Douvan & Adelson(이춘재 외 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 이상 집단과 중이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족의 적응성에서 더 크게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응집성은 행정관리직이 가장 높고, 사무직, 상업·자영업, 기술서버비스직, 전문직, 무직, 단순노무직 순이었으며, 가족의 적응성은 행정관리직이 가장 높고, 사무직, 전문직, 기술서비스직, 상업·자영업, 단순노무직, 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행정관리직에서 높은 것은 타직종에 종사한 집단보다 행정관리 집단이 기능적인 가족을 위해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가족의 적응성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독교인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즉 기독교인 경우, 정서적 유대나 개인의 자율감 정도를 많이 느끼고, 가족체계 변화능력을 많이 갖도록 하는 기능적인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여진다.

자녀의 종교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종교가 없는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천주교의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결손가족일때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응집성은 확대가족일때 가장 높고 가족 적응성은 핵가족일때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결손가족에서 낮다는 점으로 미루어, 정상가족보다 결손가족일때, 가족문제를 더 유발한다는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문제의 결과는 유영주(1990)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요인으로 가족형태, 자녀수, 출생순위, 가족원의 연령, 가족의 성별 비율을 제시하였고, 이옥임과 이옥주(1990)는 청소년기 부모와의 관계는 가족의 크기, 출생순위와 관계있다고 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1-2〉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가?

표 3을 보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에서 부정적인 대화($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가족의 특성중에 남자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적게 하도록 사회화되어진 점을 미루어 볼때, 결국 솔직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대화($P < .05$), 우호적인 비언어($P < .01$), 적극적인 반응($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14세이하와 15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서는 우호적인 비언어($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의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대화($P < .001$), 우호적인 비언어($P < .001$), 적극적인 반응($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각 의사소통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관심을 더 갖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대화($P < .05$), 긍정적인 대화($P < .001$), 우호적인 비언어($P < .001$), 적극적인 반응($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정적인 대화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대화, 우호적인 비언어, 적극적인 반응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Benson(1955), Nye(1951), 그리고 Maas(1951) 연구에서 중, 상류 계층이 하층계층보다 의사소통면에서 문제가 더 적고 더 민주적인 경향(Duvall 1977)을 보인다는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하위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상집단과 중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이경주, 신효식(1990)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대화(P<

.01), 우호적인 비언어(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행정관리직이 가장 높고, 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석경(1987) 연구에서 아버지 직업이 관리직, 전문직일 경우 의사

표 3.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분	부정적 대화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		
		M	S.D	Duncan's G	M	S.D	Duncan's G	M	S.D	Duncan's G	M	S.D	Duncan's G
자녀성별	여	13.35	2.49		19.80	3.85		19.05	2.88		9.48	2.26	
	남	14.14	2.87		19.93	3.57		18.75	2.64		9.25	2.10	
	T	-3.47*			-0.43			1.31			1.25		
자녀연령	13세 이하	13.93	2.02	A	20.29	3.65	A	19.45	2.12	A	9.78	1.74	A
	14세	13.52	2.60	A	20.18	3.70	A	19.19	2.78	AB	9.58	2.18	A
	15세 이상	13.49	2.90	A	19.40	3.72	A	18.53	2.85	B	8.96	2.22	B
	F	1.69			3.91*			5.18**			9.61***		
출생순위	첫째	13.67	2.84	A	20.02	3.80	A	18.99	2.97	A	9.46	2.28	A
	중간	13.78	2.50	A	19.91	3.70	A	18.96	2.58	A	9.20	2.13	A
	막내	13.72	2.71	A	19.64	3.72	A	18.69	2.71	A	9.39	2.16	A
	F	0.07			0.57			0.61			0.66		
형제자매수	0명	13.27	2.23	A	20.13	3.78	A	17.99	3.33	B	9.88	1.82	A
	1명	12.53	2.20	A	20.20	2.88	A	19.73	2.55	A	10.00	1.41	A
	2명	13.68	2.76	A	20.25	3.73	A	19.17	2.87	AB	9.68	2.25	A
	3명	13.69	2.53	A	19.95	3.61	A	18.97	2.62	AB	9.23	2.18	A
	4명 이상	14.01	2.93	A	19.31	3.86	A	18.54	2.82	AB	9.21	2.15	A
	F	1.26			1.27			1.71			1.69		
아버지연령	30대 이하	13.51	2.40	A	20.19	4.49	A	19.31	3.17	A	9.80	2.11	A
	40대	13.71	2.85	A	20.02	3.72	A	19.03	2.81	AB	9.40	2.27	A
	50대 이상	13.77	2.45	A	19.16	3.91	A	18.33	2.77	B	9.10	2.12	A
	F	0.14			2.66			3.43*			1.71		
아버지교육수준	국졸이하	14.24	3.03	A	18.15	4.06	C	17.70	2.76	D	8.30	2.21	B
	중졸	14.22	3.02	A	19.12	3.34	BC	18.23	2.42	CD	8.96	2.21	AB
	고졸	13.70	2.66	A	19.92	3.80	AB	18.96	2.85	BC	9.45	2.17	A
	대졸이상	13.30	2.77	A	20.84	3.67	A	19.44	3.01	BA	9.86	2.33	A
	F	1.63			4.59**			4.91***			4.12**		
생활수준	상	13.46	2.34	BC	21.02	3.38	A	19.81	2.69	A	9.96	2.10	A
	중상	13.69	2.63	ABC	19.99	3.53	AB	19.20	2.57	A	9.61	2.09	A
	중	13.40	2.90	C	19.60	4.02	BC	18.83	2.81	A	9.23	2.30	AB
	중하	14.51	2.75	A	18.80	3.75	BC	17.54	2.66	B	8.58	2.05	BC
	하	14.42	2.87	AB	18.53	3.06	C	17.52	2.62	B	8.28	2.09	C
F	3.27*			6.14***			11.38***			7.65***			

독립변인	종속변인 구분	부정적 대화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		
		M	S.D	Duncan G	M	S.D	Duncan G	M	S.D	Duncan G	M	S.D	Duncan G
아버지 직업	무	13.92	4.38	A	17.92	3.94	C	18.33	3.06	B	9.33	2.46	A
	단순노무직	13.91	1.85	A	19.00	3.27	BC	17.94	2.35	B	8.81	1.89	A
	기술서비스직	14.32	3.11	A	19.55	3.81	BC	18.79	3.19	AB	9.64	2.39	A
	상업·자영업	13.70	2.56	A	19.72	3.66	BC	18.89	2.68	AB	9.34	2.21	A
	사무직	13.19	2.64	A	20.23	4.12	AB	19.19	2.83	AB	9.45	2.30	A
	전문직	14.23	3.59	A	20.83	3.81	AB	19.44	3.03	AB	9.40	2.32	A
	행정관리직	13.58	2.52	A	21.79	2.94	A	19.90	3.18	A	9.95	2.20	A
	F	1.87			2.84**			2.32*			1.09		
종교	무	13.76	2.88	A	19.32	3.92	B	18.76	2.90	B	9.18	2.29	A
	불교	13.83	2.73	A	20.06	3.45	AB	18.81	2.59	B	9.54	2.04	A
	천주교	13.40	2.05	A	20.40	3.31	AB	19.64	2.44	A	9.44	2.24	A
	기독교	13.59	2.85	A	20.71	3.96	A	19.20	3.07	AB	9.70	2.31	A
	F	0.40			4.02**			1.85			1.60		
자녀의 종교	무	13.86	1.15	A	19.40	1.00	A	18.84	1.53	AB	9.25	2.08	A
	불교	13.69	0.71	A	20.08	4.24	A	18.55	0.71	B	9.48	2.83	A
	천주교	13.40	3.06	A	20.08	6.03	A	19.52	3.06	A	9.60	3.21	A
	기독교	13.76	4.07	A	20.12	5.03	A	18.87	3.38	AB	9.36	3.33	A
	F	0.59			1.46			1.90			0.59		
가족형태	확대가족	13.87	2.99	A	19.62	3.82	A	18.67	2.72	A	9.19	2.22	A
	핵가족	13.66	2.65	A	19.90	3.74	A	18.96	2.79	A	9.42	2.20	A
	결손가족	14.48	2.54	A	19.87	2.43	A	18.77	2.71	A	8.94	1.73	A
	F	0.96			0.21			0.42			0.72		

※ P < .05, ** P < .01, *** P < .001

소통이 개방되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해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행정관리직과 단순노무직, 무직 집단간에는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하위집단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서 긍정적인 대화(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독교일때 가장 높고, 종교가 없을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출생순위, 형제자매수, 자녀의 종교,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때, 가족환경 변인들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변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문제 1-3〉 가족환경 변인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표 4를 보면,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는 김진희(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도 14세 이하 집단과 15세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학업, 친구, 대외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독립심에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 요구가 커지며, 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생순위, 형제자매수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표 4.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독립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M	S.D	Duncan's G.
자녀성별			
여	9.70	2.80	
남	9.81	2.64	
T		-0.48	
자녀연령			
13세 이하	10.17	2.36	A
14세	10.15	2.67	A
15세 이상	9.29	2.79	B
F		7.56***	
출생순위			
첫째	9.93	2.65	A
중간	9.48	2.64	A
막내	9.78	2.68	A
F		1.19	
형제자매수			
0명	9.77	2.42	A
1명	10.80	3.28	A
2명	9.92	2.69	A
3명	9.69	2.63	A
4명 이상	9.52	2.89	A
F		0.96	
아버지연령			
30대 이하	9.98	2.77	A
40대	9.77	2.78	A
50대 이상	9.61	2.84	A
F		0.30	
아버지교육수준			
국졸이하	9.27	2.61	A
중졸	9.18	2.85	A
고졸	9.98	2.72	A
대졸이상	10.24	2.76	A
F		2.05	
생활수준			
상	10.32	2.93	A
중상	9.91	2.69	AB
중	9.66	2.76	AB
중하	9.11	2.36	BC
하	8.60	2.38	C
F		3.85**	

독립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M	S.D	Duncan's G.	
무	9.28	3.39	B	
아버지 직업	단순노무직	9.67	2.34	B
	기술직	9.85	3.05	B
	상업·자영업	9.75	2.69	B
	사무직	9.69	2.71	B
	전문직	11.32	3.23	A
	행정관리직	9.33	2.94	B
F		1.42		
종교	무	9.59	2.70	A
	불교	10.03	2.79	A
	천주교	10.18	2.86	A
종교	기독교	9.70	2.89	A
	F		1.20	
종교	무	9.61	0.58	B
	불교	10.04	0.00	AB
	천주교	10.37	4.04	A
종교	기독교	9.55	2.88	B
	F		2.37	
가족형태	확대가족	9.46	2.69	A
	핵가족	9.84	2.75	A
	결손가족	8.75	2.27	A
F		1.82		

* P<.05, ** P<.01, *** P<.001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연옥(1987)의 연구에서 형제자매 수가 적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며, 출생순위가 의사소통 만족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장호선(198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종교, 가족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Melvin(Kohn 1968)에 따르면 하류계층이 중류계층보다 권위 의식을 많이 갖고 자녀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을 제한한다고 하여 하류계층의 자녀가 의사소통 만족도가 적다고 한 견해와 일치하고 있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한 하위집단간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상집단과 중상, 중 집단간 차이가 있고, 중하와 하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때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의 연령, 생활수준이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았다.

3. 가족 적응성, 응집성과 의사소통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연구문제 2-1〉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5에서 보면, 의사소통 만족도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Duncan's Grouping Test에 의한 하위집단간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유대감, 개인간의 자율성 정도가 크고 가족 체계의 변화능력을 많이 가진 집단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크다고 생각된다.

표 5.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Duncan's G.
		M	S.D	
가족응집성	상	11.58	2.37	A
	중	9.76	2.54	B
	하	7.91	2.59	C
	F	50.93***		
가족적응성	상	11.92	2.45	A
	중	9.69	2.46	B
	하	7.79	2.42	C
	F	70.74***		

*** $P < .001$

〈연구문제 2-2〉 의사소통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6을 보면, 의사소통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대화가 적을때, 긍정적인 대화, 우호적인

비언어, 적극적인 반응이 높을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대화가 많은 집단에서, 비언어 우호성이 높은 집단에서, 반응의 적극성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김순옥(1991)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6. 의사소통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T
		M	S.D	
부정적 대화	고	8.77	2.69	-8.73***
	저	10.65	2.45	
긍정적 대화	고	10.40	2.61	6.71***
	저	8.91	2.66	
우호적 비언어	고	10.73	2.48	10.97***
	저	8.44	2.50	
적극적 반응	고	10.92	2.42	12.40***
	저	8.41	2.44	

*** $P < .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의사소통 변인인 긍정적인 대화, 우호적인 비언어, 적극적인 반응이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대화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대화와 우호적인 비언어를 많이 사용하여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때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증진되리라 생각된다.

4.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연구문제 3〉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떠한가?

표 7의 상관관계를 보면, 의사소통 만족도는 의사소통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반응, 아버지의 우호적인 비언어, 가족의 적응성, 가족의 응집성, 아버지와 긍정적인 대화와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와 부정적인 대화, 청소년 자녀의 연령과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만족에 관한 연구

다음은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차분석(Residual Analysis)을 Dubin-Watson 계수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간에 Dubin-Watson

계수가 1.93~2.07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게 나타나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하리라고 본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이 의사소통 만족도에 미치

표 7. 의사소통 만족도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가족의 응집성	1.00									
2. 가족의 적응성	0.77***	1.00								
3. 부정적 대화	-0.35***	-0.36***	1.00							
4. 긍정적 대화	0.48***	0.49***	-0.10*	1.00						
5. 우호적 비언어	0.51***	0.48***	-0.41***	0.54***	1.00					
6. 적극적 반응	0.56***	0.56***	-0.40***	0.58***	0.60***	1.00				
7. 자녀의 연령	-0.14***	-0.14***	0.07	-0.10*	-0.13**	-0.15***	1.00			
8. 아버지 교육수준	0.12**	0.15***	-0.10*	0.17***	0.18***	0.14***	-0.11*	1.00		
9. 생활수준	0.16**	0.21***	-0.10*	0.20***	0.26***	0.22***	0.01	0.31***	1.00	
10. 의사소통 만족도	0.46***	0.48***	-0.42***	0.37***	0.52***	0.56***	-0.14***	0.11**	0.16***	1.00

* P < .05, ** P < .01, *** P < .001

는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의사소통 만족도는 청소년 자녀 모두 유의한(P < .001, P < .01) 수준에서 의사소통 변인인 적극적

반응($\beta=0.28$)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우호적인 비언어($\beta=0.21$), 가족의 적응성($\beta=0.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적응성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표 8.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전체		여학생		남학생	
	B	β	B	β	B	β
가족의 응집성	0.01	0.03	0.02	0.09	-0.01	-0.03
가족의 적응성	0.05	0.06**	0.04	0.13	0.01	0.18
부정적 대화	-0.16	-0.15***	-0.14	-0.12*	-0.18	-0.20***
긍정적 대화	0.02	0.03	0.06	0.08	0.01	0.01
우호적 비언어	0.21	0.21***	0.22	0.23***	0.19	0.19**
적극적 반응	0.35	0.28***	0.36	0.29***	0.35	0.28***
자녀의 연령	-0.15	-0.04	-0.21	-0.05	0.01	0.00
아버지 교육수준	-0.05	-0.05	-0.01	-0.01	-0.02	-0.03
생활수준	0.03	0.01	0.10	0.04	0.00	0.00
R ²	0.42		0.45		0.41	
F	38.72***		23.26***		16.39***	
D-W	1.93		1.93		2.07	

* P < .05, ** P < .01, *** P < .001

게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우호적인 비언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남학생은 가정의 분위기에, 여학생은 아버지의 대화 태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대화($\beta = -0.15$)는 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여학생($\beta = -0.12$)보다는 남학생($\beta = -0.20$)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청소년 자녀와의 부정적인 대화는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남학생에게 더 의사소통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변인들은 의사소통 만족도를 청소년 자녀 전체의 42%를, 남학생의 41%를 여학생의 45%를 설명해 준다.

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의사소통 만족을 규명하여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상호이해증진과 의사소통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가정에 있어서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생활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복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적응성, 응집성,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 만족도 척도의 표준화 문제, 청소년 연구대상의 표집범위가 좁았다는 점과 선행연구의 자료빈약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각각 자녀의 성별($P < .01$, $P < .011$), 연령($P < .001$, $P < .01$), 아버지의 교육수준($P < .05$, $P < .01$), 생활수준($P < .001$), 직업($P < .01$), 아버지의 종교($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 직업에 있어서 행정 관리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직업, 아버지의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게 부정적인 대화($P < .05$)를 더 많이 하는 편이며,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긍정적인 대화($P < .05$)와 우호적인 비언어($P < .01$)를 많이 사용하며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반응($P < .001$)을 보였다. 아버지의 연령이 적을수록 우호적인 비언어를 많이 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대화를 제외한 모든 의사소통 변인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대화를 적게 하고, 긍정적인 대화와 우호적인 비언어 그리고 적극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에 종사할수록 긍정적인 대화($P < .01$)와 우호적인 비언어($P < .05$)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대화($P < .01$)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기독교일때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 환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자녀의 연령($P < .01$)과 생활수준($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5) 의사소통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대화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대화가 많을때, 우호적인 비언어를 많이 사용할때, 의사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높을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6)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의사소통의 변인인 적극적인 반응($\beta = 0.28$)이 가장 크고, 우호적인 비언어($\beta = 0.21$), 가족의 적응성($\beta = 0.16$) 순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적상관으로는 부정적인 대화($\beta = -0.15$)가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42%였다.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간의 의사소통을 이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 본다면,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만족도를 증진시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한국가족에 적용 하였으므로 계속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더 정교화된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소통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가족환경 변인, 가족기능 변인, 의사소통 변인외에도 사회심리 적요인, 상황요인, 상호작용요인 등을 포함시킨 다양한 접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아동기, 성인자녀까지 확대, 적용해 보고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부모-자녀 쌍방간의 연구도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순옥, 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 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143~155.
- 김순옥, 1991.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1983. 어머니와 청년기 자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1989. 부모 - 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옥, 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중 3학생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0. 신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결남, 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주, 1989.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주, 신효식, 1990. 청년기 자녀의 아버지와 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1~13.
- 이석경, 1987. 청년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옥임, 이옥주, 1990. 가족관계학, 수학사
- 이정우, 김규원, 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 147~159.
- 이춘재외 8인, 1987.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이향연, 1986. 사춘기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활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호선, 1987. 부모 -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영, 1986.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 1985.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상·하) 서울 : 세영사.
- Barnes, Howard & Olson, D.H. 199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pp.438~447.
- Bell, R.Q., 1982. Parent - adolescent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runaways :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ntley, S.S., 1984. Family cohesion in families of twins,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1983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3) : 960~A.
- Duvall, E.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J.B. Lippincott Company.
- Herzog, E. & Sudia, C.E., 1973.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Cadwell, B.M. & Ricciuti, H. N.,(eds)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0.
- Kenny, G.E., 1983.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 cohesion adaptability and stress

- in blended, single-parent and intact families,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 1983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9) : 2899~A.
- Kohn, M.L., 1968. Social class and the family, Holt, Rineheart and Winston.
- Lavee, Y., 1985. Family type and family adaption to stress :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Rodick, J.D. Henggler, S.W. & Hannson, C.L., 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
- Rollins, B.C and Thomas, D.L.,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W.R. Burr, eds, New York : MacMillan Press, pp.317~364.
- Olson,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VI : Theoretical up date, family process, 22, pp.69~83.
- Olson, D.H. Po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Minnesota : Univ. of Minnesota.
- Steinmetz, S.K. 1979. Disciplinary techniques and the irrelationship to agressiveness, dependency and conscienc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 MacMillan Press, 405~438.